현대소설연구(제7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9.12.76.005

1930년대 중반 신문 매체의 문학 담론과 김정한의 초기 단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신춘문예와 「사하촌」 당선을 중심으로

김 준 현*

요약

1935년과 1936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라는 양대 신문 매체에서의 문학 담론과 김정한의 초기 작품활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당시는 카프 해산으로 좌파 문단이 극심한 침체기에 들었을 때지만, 양 신문의 문예 지면은 여전히 문학에서 계급성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비평과 논쟁들을 치열하게 게재하고 있었다.

당시 두 신문에서 치열하게 제시되던 키워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강령적 도입 여부에 대한 대응 논리의 일환으로서 '국가적/민족적 특수성', '현실성' 등의 기호들이었다. 신문의 신춘문예는, 신문의 매체이념과 이데올로그들이 공유하는 문학관이 관철되는 중요한 경로였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이념으로서의 문학담론들이, 신춘문예 당선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또한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작가 지망생들에게 있어서도, 신춘문예의 심사평이나 공모요강 등은 강한 참조점을 시사했다.

따라서 김정한의 「사하촌」이 양 신문에 동시 투고되어 조선일보에서 당선되고, 그 이후 「사하촌」 뿐 아니라 김정한의 초기작이 지면을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언급되며 고평가되는 것은, 김정한 문학의 자체적 우수성뿐 아니라 당대 문단 지형과 문학담론의 맥락과도 연관되어 있다.

전자의 문제는 워낙 많이 언급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은 후자의 문제를 주목

* 성신여대 인문과학대학 초빙교수

하였으며, 당대 김정한의 작품이 문학 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신문의 매체이념을 통해 드러나는 문학담론의 자장 하에 위치한다는 것을 밝혔다.

주제어: 김정한, 문학 담론, 동아일보, 조선일보, 1930년대, 신춘문예

목차

1. 서론
2. 1935년과 1936년 문학 장의 상황과 문학 담론
3. 「사하촌」, 그리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신춘문예
4. 결론

1. 서론

이 글은 요산 김정한의 1930년대 후반 작품, 즉 초기 작품이 당대의 문학 장,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한 문학 장의 흐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당대 신문 매체 지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학 담론의 맥락과 김정한의 당시 작품들을 연결해보는 것이기도 하다.

문학작품은 개별적이고 개성적인 작가 개인의 저작이기도 하지만, 당시 문학 장의 맥락과 연관되어 생산되고, 또 수용되는 사회문화사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문학작품의 특성과 의미는 당대 담론의 맥락에서 형성된 '수요'에 의해 문학 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문 지상의 평론 활동이나, 신춘문예 심사/선정 등의 구체적인 행위들이다. 당대의 문인들은 여러 지면에서 이합집산하며 어떤 성격을 지닌 문학작품이 요구되는지 선언하는 형식으로 담론투쟁에 참여한다. 그리고 작품이 유통되었다면 당시의 이러한 담론투쟁

의 양상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글은 물론, 당대 문학 담론이 김정한의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김정한이 당대 문학 담론을 적극적으로 참고했다는 사실을 가설로 내세워 증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이 쓰고 있는 방법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당대 문학 담론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학작품에 대한 요구/수요와 김정한 작품의 친연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김정한 작품이 가진 시대적, 사회적 특징을 이를 통해 조명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요산 김정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36년 「사하촌」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면서 정식으로 등단하였다.[1] 그리고 이어서 상당히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벌인다. 「옥심이」(1936), 「항진기」(1937), 「기로」(1938)를 조선일보에 발표하고, 「당대풍」(1938), 「그러한 남편」(1939), 「문인자실도」(1940)을 〈조광〉지에 발표한다[2]. 주지하듯이, 〈조광〉은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하던 종합지이다. 이를 통해 보면, 김정한의 해방 이전 작품세계는 거의 조선일보사 발행의 매체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선일보사가 〈조선일보〉와 〈조광〉을 통해서 전파하던 문학 담론[3]과 김정한의 소설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었으리라는 가설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해

1) 당시 많은 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하촌」이 김정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문학작품은 아니다. 김정한의 당시 문단 활동은 정미숙, 「부산 지역의 소설과 매체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8, 2017. 등을 참고.

2)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 「월광한」은 1940년 〈문장〉 2권 1호에 발표.

3) '매체이념'은 신문 등의 매체를 간행하는 주체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기호이지만, 이 글에서는 그 쓰임새를 최소화하기로 한다. 문예지의 매체이념은 간행주체들이 공유하는 문학 담론이지만, 문학 관련 문건만 지면에 싣는 것이 아닌 신문의 매체이념은 그것보다 범위가 더 크다. 따라서 '문학담론'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려고 한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문학 담론 지면을 담당했던 주요 필진들이 공유했던, 혹은 그 지면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있던 문학 담론을 '조선일보의 문학 담론'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당 작가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해당 매체의 지면에 게재하는 것은 최소한 신문의 문학 담론과 해당 작가의 작품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당대 신문간행 주체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두 매체의 문학면 담당자들이 공유하던 문학 담론과 김정한의 작품 활동이 모종의 연관성이나 친연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가설 역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당시 김정한 소설의 발표지면은 〈조선일보〉에 집중되어 있으나, 사실 김정한의 생애에서는 〈동아일보〉도 무시할 수 없는 밀접성을 가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아일보〉 동래 지국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일제의 탄압에 1940년 검거당하고 절필을 하는 등, 그의 '대쪽 같은' 인생의 질곡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신문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듯이, 「사하촌」이 김정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문학작품은 아니다. 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1930년에는 「언니 금반지」, 「한어머니와 떡」과 같은 동요 작품 4편을 〈동아일보〉에 발표하기도 하였고,[4] 또 1932년 2월 〈문학건설〉에 「그물」이라는 소품을 발표한 적[5]도 있다.

어찌 되었든, 김정한은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라는 양대 매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하촌」이라는 작품과 김정한이라는 작가의 문학 활동에 대해 이 두 매체에서 주목한 정도는 상당하다. 「사하촌」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조선일보〉 지면뿐 아니라, 〈동아일보〉에서도 이 작품을 「정축년 문단회고」라는 글에서 1936년의 가장 괄목할 성과로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신문 매체의 문학 담론과 김정한의 작품이 갖고 있는 친연성은 충분히 가설로서 접근되어 논의해 볼만한 이유가 있

4) 이에 대해서는 박경수, 「부산 · 경남 지역 아동문학의 현황과 전개 과정 연구」, 우리문학연구 31, 2010. 10, 참고.

5) 이희환, 「1930년대 신세대 작가의 두 갈래 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다고 하겠다.

「사하촌」이 실제로 창작되었을 1935년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1936년은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이른바 '전시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직전 시대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이미 일본/조선총독부의 문학작품, 언론활동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전과 비교했을 때 매우 공세적으로 변했으며, 이 변화는 이미 문인, 언론인들에게 명확하게 감지되었던 시점이었다.[6] 거기에 1931년, 1934년에 걸친 1차, 2차 검거사태를 겪었던 KAPF는 1935년 해산계를 제출하고 10년에 가까운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1936년은 이른바 KAPF 해산 직후의 시대이며, 또한 전향체제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문학 담론의 구체적인 양상도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그 사정은 김정한의 작품을 두 매체에서 환영하게 되는 조건/환경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은, 1935년 중반의 문단 사정 및 문학 담론과, 〈동아일보〉, 〈조선일보〉라는 양대 신문매체가 연관 맺은 양상을 전제로 하여 「사하촌」을 비롯한 당대 김정한 문학과의 관련성을 논의해보기로 한다[7]. 이를 통해 당시 문학 담론이 김정한의 작품을 받아들이는 방식, 또 당대 문학 담론과 매체의 관계, 그리고 KAPF 해산 등 검열과 탄압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당대 문학 담론이 변화한 바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정한은 「사하촌」으로 양대 신문의 신춘문예에 모두 응모를 했다. 김정한이 둘 중 하나의 매체에서 당선되고 활발한 활동기를 맞으며

6) 1920년대부터 카프 관련 검열은 꽤 활발했으며, (우시지마 요시미, 문한별, 「192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의 검열 문건 연구」, 『어문론집』72, 2017. 12.)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총독부의 검열이 이전 시기와는 비교될 정도로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여러 지점들이 존재하였다.

7) 김정한과 신문매체의 연관성에 대해 논한 연구(오현석, 「요산 김정한의 신문 매체에 대한 인식과 소설 창작 방법 연구」, 『한국문학논총』 77, 2017)가 최근 제출되었다. 신문 매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1970년대의 작품과 당대 신문과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글과 구별된다. 또, 신문 매체의 기사와 소설의 관계, 신문 매체의 문학 담론과 작품의 관계를 비교한다는 점에서도 관점/방법론 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양대 신문의 문예면 필자들에게 고평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맥락이 존재한다. 김정한이 갖고 있는 지사로서의 특성, 절필로 표상되는 기개와 절개 등 개인으로서 예외적인 지점들 때문에 김정한의 문학이 당대 문학 자장 안에서 문학 담론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개인 작업의 소산이기 하지만, 또한 당대 문학 장의 자장 하에서 창작되고 유통되는 사회문화사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개개의 문학작품이나 한 작가의 문학 활동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살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김정한이 가지고 있는 문인으로서의 개성적 특질이 워낙 강하게 조명되었기 때문에, 김정한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이 균형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정한의 등단 후 작품세계가 확립되는 과정, 또 문단 신인으로서 김정한이 문단에 입사하고 문단에서 입지를 획득해 가는 과정을, 신춘문예라는 등단제도, 더 나아가서 신문의 문예지면 담당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문학 담론을 전파하고 재생산하는 제도와 연관 지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김정한 문학의 특성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여 질감 있게 그 의미를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김유정과 김정한은 21세기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질적인 작가로 기억되지만 당대의 논자들에게는 그러하지 않았다. 21세기에 30년대 문학 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당시의 관점은 상이하였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당대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재구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이지만, 김정한의 경우는 그의 생애적 특성 때문인지 그 작업이 더딘 면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김정한 소설의 논의가 나아갈 한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1936년 신춘문예를 전후하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던 문학 관련 비평문이나 심사평 중에서 김정한의 작

품세계와 연관 지어 논의할 수 있는 글들을 적극적인 고찰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이 글들을 통해 당시 양대 신문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했던 문학 담론, 그리고 그 문학 담론들을 통해서 '요구', 혹은 '기대'되었던 문학 작품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김정한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의 작품이 당시 담론과 얼마나 친화적이었는지 고찰하여 김정한 작품이 수용되는 시대적인 맥락을 살피기로 한다.[8)]

2. 1935년과 1936년 문학 장의 상황과 문학 담론

당시 동아일보 문예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점한 중국문학 연구자이자 문인 중 한 명인 정내동은 1935년 이후의 문단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 그러나 현금에 이르러서는 이론은 고갈되고 현실의 관찰은 천박하여서 귀를 기울일만한 논쟁주장은 없어지고 한갓 소잡한 난음에 불과하다.[9)]
>
> 첫째 재래로 민족파는 잘못하면 편협한 쇄국주의와 전통과중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상의 자기 과장에 흐르게 되어서 널리 지식을 구하려 하지 않고 고식적 자아도취가 되어...(중략)...다음에 계급파는 그 사상적 배경으로 보아 국제적 관심과 문화수입에는 진보적이었다 할지라도 대략 직역적 공식주의와 이론의 난삽적 고루에 흐르기 쉬웠으며...(중략)... 그러다가 근자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이론이 수입되어 그 인식부족을 부

8) 따라서 이 글은 김정한의 「사하촌」과 같은 작품들을 다시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 중시하는 것은 「사하촌」의 내용과 의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들이 당대 문인들에게 받아들여진 양상이다. 요컨대 1930년대 양대 신문 지면을 담당했던 문인들에게 받아들여진 「사하촌」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이었는가가 이 글의 관심사이다.

9) 정내동, 「문단숙청과 외국문학 수입의 필요(1)」, 〈동아일보〉, 1935. 8. 2.

분적 청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10]

KAPF 해산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기는 1935년 6월이지만, 사회주의 문학, 혹은 소위 '좌익문학'과 관련한 문인들의 관심과 활동이 급속도로 무화된 것은 아니었다. '민족파'와 '계급파'로 나누어서 각 문학 진영의 문제를 설파하고 있는 인용문도, 사실은 현실과 이론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11]을 거론하는 것을 통해 필자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카프에 무게중심을 둔 입장에서 당대 문단을 파악하려고 했던 시선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 더하여 동아일보 문학 관련 지면을 장식하던 송강, 「해외문학파에 대한 數言」[12], 김두용의 「문단동향의 타진 - 구인회에 대한 비판」[13]은 카프 해산을 즈음하여, 카프와의 연관성(그것이 친연성이든 대립성이든)을 보였던 문인 단체들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글들이다. 그리고 송강, 김두용의 이에 대한 시선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카프를 기준, 혹은 모범으로 하여 해외문학파와 구인회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었다.

해외문학파는 카프의 임화와 해외문학파의 이헌구가 열띤 지상 논쟁을 벌인 것으로 그 대립각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었으며, "이러한 작가들이 무슨 이유로 구인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조직의 목적하는 바는 어디 잇을가? 그것은 '갚푸'에 대한 반항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14]라고 필자인 김두용이 단언하는 것처럼, 두 단체는 카프의 대립단체로서 호명·

10) 정내동, 「문단숙청과 외국문학 수입의 필요(3)」, 〈동아일보〉, 1935. 11.3.

11) 사실 계급파의 활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입의 시기를 상당히 다르게 보고 있는 이 관점은 사회주의 문학 담론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외연이 현재의 기억과는 상당히 달랐음(좁았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점이다.

12) 〈동아일보〉, 1935. 4. 18.

13) 〈동아일보〉, 1935. 7. 28.

14) 같은 곳.

소환되며, 필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 단체들에 대해 '브루주아적'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송강의 해외문학파에 대한 논의가 김두용의 구인회에 대한 비판에 비해서는 온건하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를 촉구하고, 브루주아 문학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김두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회주의 운동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인회를 비판하고, 카프의 해산 상황이라는 데 있어서 강력한 불만을 표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1935년과 1936년 동아일보의 '문예 관련 지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다. 그는 1935년에는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24건의 글을, 1936년에는 8건의 글을 발표한다. 그의 행적을 짚어 보면 1935년에 동경으로 건너가서 '조선예술좌'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좌익문학 활동을 하면서 카프의 유산을 이어가는 데 힘을 쏟은 만큼, 36년부터 동아일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15] 어쨌든 이 글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동아일보가 문학 관련 지면에서 김두용이라는 필자를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35년 동아일보 지상에서 펼쳐진 가장 열띤 논쟁은 김두용과 한효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양자의 입장차에 의한 것이었는데, 김두용은 'XX적(혁명적 - 필자주)[16] 로맨티시즘'이라는 개념을 들어 현실에서 거리를 둔, 공식에 의한, 또한 각국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창작방법론을 비판하였다.

15) 그리고 이는 카프 해산 등 점점 더 심해지는 조선 내 검열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행적이라고 할 수 있다.

16) 당시 '혁명'은 복자처리 대상이다. 오히려 '사회주의' '마르크스' 같은 단어들은 복자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가 되는 검열 기준이 작동되고 있었다.

즉 말하면 관념적이다. 생활이 박약하다. 생활의 시, 생활의 문학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시인문학자가 XX을 부르짖되 그 생활 속에서 성장 못한 까닭이다. 따라서 그 시에는 XXX로맨티시즘은 있다. 그러나 XXX레알리즘이 적다.[17]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효와의 논쟁에서 김두용은 추상적인 창작방법을 지양하고 구체적 현실에 등을 대고 있는 리얼리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문학이 먼저 지양하는 바는 '농민문학'이라는 사실 또한 함께 역설된다. '노동자 작가', '농민 작가'[18]의 출현에의 열망이 나타나는 것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였다. 민촌 이기영이 「고향」을 통해서 보였던 지평을 이어갈 만한 작가를 신인 중에서건, 기성 작가 중에서건 찾고 싶어 하던 욕망이 당대 좌익 계열 문인들에 의해서 폭넓게 공유되었다.

1935년 동아일보 지면에서 선도적 비평[19]의 지면은 사실 앞에서 소개된 송강, 김두용, 한효에게 무게중심이 쏠린다. 김광섭, 이헌구, 서항석이 해외문학파의 일원으로 「건설기의 민족문학」을 불란서, 독일, 애란 등을 대상으로 1935년 1월에 연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동아일보의 지면이 카프에 대립하던 '순수문학적 민족문학'에 지면을 충분히 할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이후 이헌구나 김광섭이 적극적으로 재구성한 과거의 기억과는 달리, 사실 해외문학파는 카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시즘에 대한 직역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자신이 사회주의 문학과 적대적이지 않음을 역설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20] 요컨대, 해외문학파는

17) 김두용, 「로맨티시즘론, 창작방법문제 재론의 계속(6)」, 1935. 12. 7.

18) 김두용, 「창작방법 문제에 대해 재론함」, 1935. 11.9.

19) 이 글에서는 특정 작품의 사후 비평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작품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는 비평이라는 면에서 '선도비평'을 '추수비평'의 대립어로 사용했다.

20) 이에 대해서는 조윤정, 「번역가의 과제, 글쓰기의 윤리」, 『반교어문학』27, 2009, 김준현, 「단정 수립 후 문학 장의 변화와 이헌구의 문단회고」, 『어문논집』83, 2018. 참고.

사실상 이후에 기억되는 타이틀, 즉 '순수문학적 민족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였다고 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볼 때, (오랫동안 공유된 기억과는 달리) 카프 해산 후인 1935년에도 동아일보의 문예 관련 지면은 어떻게 계급적인 문제를 문학으로 녹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필자들이 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당대의 타개책으로 구체적인 (농민 중심의)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 로맨티시즘'과 '혁명적 레알리즘'을 구별하는 기준이 '생활'이라는 것, 즉 실질적인 '생활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그것을 통해 혁명의 가능성을 그리는 것이 당대 동아일보 지면에서 나타난 주요 문학적 과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세계좌익문단의 거성 바르뷰스를 논함」이라는 글이 1935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연재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바르뷔스의 사망과 때를 같이하여 이 특집이 실리기는 했지만, 역시 이 과정에서도 바르뷔스가 강조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좌익문단의 거성'이라는 추상적 사실 때문은 아니고, 그가 '하층민'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품에서 소재로 사용했다는 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35년과 1936년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살펴보면, '창작방법론'과 '사회주의 리얼리즘'[21], 그리고 '농민문학'이 당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카프 활동 후반에 김남천, 안함광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창작방법론과 관련된 논쟁은 그대로 동아일보 지면에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대 동아일보의 필진 역할을 했던 문인들이, 혹은 동아일보의 문학 담론이 새로운 창작 주체, 즉 작가의 출현에 목말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시기 조선일보의 문예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문인들은

21)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혁명적 로맨티시즘'과의 대립을 통해 '구체적 생활'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좁혀진 개념으로 보인다.

한식, 백철, 이원조(당시 조선일보 학예부 기자로 활동), 김오성 등이었다. 이헌구, 김광섭 함대훈[22] 등의 해외문학파는 같은 시기 조선일보 지면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사회주의 문학 계열, 친(전) 카프 계열 문인들의 활동의 형세와 견주기는 어려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일보는 1920년 창간 때부터 사회주의 문인들의 주된 활동무대가 되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매체적 차원의 적극성과 친연성에 있어서는 동아일보를 상회할 정도였다.

"오즉 문학에 잇서서 우리의 진로는 이 현실성을 잇지 말어야 할 것임을 무엇보다도 힘잇게 역설하는 바이다"[23]라는 선언을 시작으로, 1935년의 조선일보 지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키워드는 단연 '현실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조선 고전문학의 계급적 관찰론」(1935년 11월), 「조선문학의 위기에 대하야」(1935년 12월) 등에서 카프 이후의 조선 문학의 방향성 타진과, 계급적 문학의 가능성이 중요하게 타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문단 위기의 타개는 '현실', 혹은 '현실성'이라는 기호로 집중된다.

> 모든 사회 현상 그 중에서도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네의 현실이 엇더한 단계에 ?해 있다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은 우리 문학의 가장 영웅적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업슬것이다. 물론 이러한 난제를 문학적으로 해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업다고 하드래도 그것이 성공이 었든 실패이었든 만약 신인이라는 것이 참다운 문학적 정신의 담당자라

22) 사실 해외문학파가 계급문학, 사회주의 문학과 친연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헌구나 김광섭도다도 이 당시 함대훈의 글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싸베트 문학의 주조」(1935년 1월), 「고민, 절망 불안의 문학, 지식 계급의 동요성에 임하여」 등과 같이, 소비에트 문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외문학파가 카프를 비롯한 국내파 사회주의 계열 문인들에 비해 계급문학 수입에 있어서 새로운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인정투쟁의 열망은 더 강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23) 함대훈, 「조선문학의 현실성 - 금후 조선문학의 진로는 어디로?」, 조선일보, 1935. 2. 21.

면 이러한 현실면에 가장 집요하게 착수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24]

그중에서 조선일보 학예부 기자였던 이원조의 '신인론'은 문학에서 현실성이 갖는 위치를, 또한 현실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창작방법론'과 역량,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삶의 조건(의 계급성)'을 갖추고 있는 신인 작가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는 가장 괄목한 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이 조선일보에 게재된 시점은, 사실 1936년 신춘문예 작품의 선정으로부터 채 2달 반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그 시점을 투고와 심사로 본다면, 훨씬 짧은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잇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인론에 대한 여러 가지 가십들(그중 일부는 문단청산론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25])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 이 글은 결국 신인에게 있어서 '현실의 형상화'가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창작방법론이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따라서 이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난제'임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카프의 해산 이후, '전향기'라고 할 수 있는 1935년과 1936년에도 꽤 활발하게 사회주의 문학, 계급문학의 문제를 지면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그것을 조선문학의 전망으로 자리 잡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두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인 키워드는, '현실', '생활' 그리고 '신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는 당시 복자 처리 기호였던 '혁명'이라는 전제로 집약된다.

따라서 김정한이 이 시기 신문 매체에서 중요한 작가로 등장하게 되는 데에는 이러한 양대 신문이 보여주던 매체적 차원에서의 문학 담론과의

24) 이원조, 「신인론, 그 문학적 본질에 관하여(4)」, 1935. 10. 17.

25) 함량미달의 신인이 많음이 문제가 되어, 그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되던 맥락이 당시 존재하였다. 좋은 사례로는 「신인추천에 대하야」(〈동아일보〉, 1935. 6. 23)을 들 수 있다.

연관성을 가설로 세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연관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가능한데, 하나는 당대의 문인들, 그리고 신춘문예의 선자들이 김정한의 소설에 대해 보여주게 되는 고평/호평에 대한 배경이다.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친/구 카프 계열 문인들과 해외문학파 문인들이 지면을 양분하고 있었다. 후대에는 반공주의의 영향 때문에 카프파 문인들과 해외문학파 문인들의 극명한 대립을 했던 것으로, 특히 해외문학파 문인들이 '순수문학'을 강조하고 문학의 정치성을 배격한 것으로 공유 기억이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당시의 글들을 보면 두 계열의 문인들 모두 문학 안에서의 '계급성'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그 창작방법론의 키워드로 '현실'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바르뷔스가 일종의 롤모델처럼 제시된 것은 그러한 맥락이며, 따라서 하층민을 소재로 삼았던 점, 소설의 구성이나 기교보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묘사에 집중했다는 점, 또한 그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후면화했다는 점은 김정한 소설이 당대 문인들에게 다가갈 때 있어서 강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김정한의 창작방법론이 확립되는 데 있어서 당대의 문학담론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으리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물론 김정한의 문학관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당대 담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한의 독서 경험이나, 김정한 자신의 창작 이념에 대한 메타적인 문건의 연구 없이는 증명되기 어려운 가설이다. 시기적으로도 김정한이 『사하촌』을 투고하는 시점과 이 시기 문학 담론이 유통되는, 특히 '사회주의 리얼리즘', 혹은 '혁명적 리얼리즘'이 본격적으로 호명되는 시점 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당대 문학론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정한의 작품이 생산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무리한 가설이 될 여지가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한처럼 자신의 삶과 문학적 성취의 거리를 가깝게 설정한 문인이 드물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실이다. 따라서 김정한의 문학적 성취 방향 자체가 당대 문인들의 논의에 의해 결정되었

다는 가설은 증명되기 어렵고, 증명되었다 한들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없다.[26]

하지만 문학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이런 논의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가령, 작품을 퇴고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소설의 구성을 치밀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작가가 끝까지 고민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둘은 일면 대립적인 면을 갖고 있어서, 양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당대의 선도적 문학비평들이 그러한 담론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하촌」을 비롯한 당대 발표된 김정한의 문학 작품의 세부적인 모습을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은 얼마든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3. 「사하촌」, 그리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신춘문예

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자 신문 1면[27]에는, 두 편의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작[28]을 알리는 사고가 게재된다. 소설 당선작 두 편 중 한 편은 김정한의 「사하촌」이다. 하지만 이 작품들에 대한 심사평은 실려 있지 않다. 대신 해당 페이지는 이 사고 외에 상당한 분량을 지닌 두 건의 글로

26) 김정한이 광복기에 '조선예술동맹', '조선문학가동맹' 등의 좌익 단체의 부산지부에서 요직을 맡았고, 이 사실로 인해 추후 보도연맹에 가입되는 고초를 겪었던 것은 이미 자세하게 밝혀진 바 있다(이순욱, 「광복기 요산 김정한의 문학활동 연구(1)」, 『비평문학』, 2013, 참고). 하지만 광복 직후의 조선문학가 동맹 등은 사회주의 계열, 민족문학 계열을 아우르려는 방향성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이 단체들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1930년대 김정한이 사회주의 문학 담론을 갖고 있었음을 소급적으로 증명해주는 사항이 될 수는 없다.

27) 엄밀히 말하면 '신년호 基 八'의 1면이다.

28) 김정한의 「사하촌」과 함께, 차자명의 「전락」이 소설부문 당선작으로 발표되었다. 사고에는 '次席 2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꽉 채워져 있다. 하나는 엄흥섭의 「작가의 기본 책무와 조선 현실의 파악」,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림의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 관심」이다. 두 문건의 조합은 여전히 조선일보 문예면의 중심 키워드는 '현실'이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두 건의 글이 갖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현실'이라는 기호를 모두 '작가', '시인'의 자격, 혹은 책무와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신춘문예 당선작을 알리는 사고가 실린 면에 심사평, 혹은 선후평이 실려 있지 않은 대신, 이 두 건의 글이 당선자를 포함한 신인, 또 신인들을 아우르는 전체 문인에 대한 방향 제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이 글들이 심사평 아닌 심사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각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보다는 조선일보 문학 담론을 담당하는 필진들에게는 창작 방향과 방법을 선도하려는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하촌」이 낙선한 동아일보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심사평이 게재된다. 동아일보 1월 5일자에 실린 「신춘문예선후감(2)」에는 김정한의 낙선 경위가 언급되어 있다.

> 이리하야 최후로 김정한 씨의 「사하촌」과 김동리 씨의 「산화」, 정비석 씨의 「졸곡제」의 3편을 들고 선자는 한동안 주저했다. 김정한 씨의 「사하촌」은 남도의 어떤 대본산에 소속된 소작농촌을 그린 것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났으나 단편소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너무나 많은 인물, 너무나 많은 사건을 취급하려던 것이 이 作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 만흔 인물을 단편에서는 취급치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작자는 환등식으로 A,B,C의 인물과 사건을 나열하는 과오를 범했다. 인물과 사건에 좀 더 체계가 있고 연락이 있었으면 싶었다. 비교적 리얼한 수법이라든 스케일이 큼에는 취할 바 있섰다.[29]

29) 選者, 「신춘문예선후감」, 동아일보, 1936. 1. 5.

(밑줄 - 인용자)

현재에는 완강하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일작품 중복투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작동하지 않던 시절이라, 김정한의 「사하촌」은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시에 응모되었고, 동아일보에서는 김동리, 정비석의 작품과 함께 최종심 3편에 오르는 결과를, 그리고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는 당선의 성적을 얻게 된다.

인용문을 통해 보면, 당시 김정한은 김동리, 정비석과 '등단의 자격'을 놓고 겨루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물론 당대 이후의 문단 지형을 아는 후대 독자의 소급적인 판단이지만, 경쟁자들을 보면 당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등단하는 것은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문단 지형을 살피는 것은 당시 등단을 준비하는 신인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농민들의 생활이 비교적 뚜렷이 드러났으나'라는 평가의 근거가 별다른 설명 없이 언급되고 있다. '생활을 드러내는 것'이 소설의 평가에서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심사 요지에서 사용된 개념들을 통해 당시의 중요한 키워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당대 문단의 지향을 재구성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현실'과 동아일보의 '생활'은 각각 다른 기호이면서도 상당히 넓은 교집합을 갖고 있으며 창작/비평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여러 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등단제도는 문예 관련 매체가 자신의 매체 이념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경로이다.[30] 신문의 경우, 매체의 간행

30) 이에 대해서는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36, 2009, 「잡지 〈문예〉의 성격과 위상」, 『상허학보』, 2006, 김준현, 「전후 문학 장의 형성과 문예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등에서 논의가 많이 축적된 바 있다.

주체들, 그리고 문학/문화면 담당 필진들이 공유하던 문학 담론은 신인들이 신춘문예를 통해 발표한 작품을 통해서 실천되고, 또 재생산된다. 문예지의 '추천제도'가 한두 명의 추천 주체를 갖고 있고, 그 추천이 도제(徒弟) 제도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등단제도 중에서도 특정 문인의 문학 담론의 재생산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간지의 신춘문예는 3명 내외의 선자를 가지기 때문에, 추천자 개인보다는 추천자 집단, 혹은 필진들이 공유하는 문학 담론이 재생산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요컨대 신춘문예 등단 작품은 필진들이 공유하는 문학 담론에 의해 형성된 '문학 작품에의 수요'를 반영하는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 무엇보담도 새로운 현상은 신신치 안한 ????을 취재한 것이 훨씬 줄어들고 자기들이 생장한 어농촌 내지 자기가 살고 있는 노동자의 거리 등을 묘사한 그것이다. 더구나 우리를 기뿌게 하는 것은 그 어농촌이나 노동자의 거리도 어떠한 추상적 이론을 증명키 위하야 끌어온 것보담 일상생활 그대로를 묘사키 위하야 애를 쓰는 경향이 확실히 나타난다는 그것이다.[31]

신춘문예 응모자라면 전년도 신춘문예의 선후감을 파악하고, 그 신문의 선자들이 선호하는, 혹은 요구하는 문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늠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용문은 김유정이 「소낙비」로 당선되었던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심사평인데[32],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김정한의 「사하촌」이 당시 평자들과 신문 문예면의 이데올로그들이 요구하는 작품의 성격, '일상', '현실'의 요소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 첫 번째이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의

31) 일 선자, 「신춘문예 선후감」, 조선일보, 1935. 1. 1.

32) 심재순의 「줄행낭에 사는 사람들」이 희곡 당선작인데, 다른 작가와 달리 심재순의 이름 뒤에만 '양'이 붙어 있다.

신춘문예 선자들의 생각이 1935~1936년 지면에 실린 문예 비평들과 내용상으로 일맥상통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신춘문예 당선작의 선정, 문인들의 투고 활동 등은 언뜻 보기에는 서로 무관해 보이나, 사실 상당히 유기적으로 신문의 지면에서 문학 담론 방향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김유정의 「소낙비」와 김정한의 「사하촌」은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작품이나, 구체적인 현실을 묘사했다는 점, 그리고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추상적 이론을 증명키 위하야 끌어온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다.

김유정과 김정한은 20세기 후반의 문학적 담론을 경험한, 혹은 이들의 생의 질곡이 상당히 상이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질적으로 기억되는 작가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당대적인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맥락에서는 두 작가의 상이성보다는 공통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사하촌」은 줄거리(스토리) 없는 소설이다. 정확히 말하면 스토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기계적인 줄거리를 무시하였다. 어떤 명확한 내용의 진행해 가는 '力線'은 꼬집어 낼 수 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현실적인 양자를 감명시켜준다. 그것은 생활의 산문시다. (중략) 아무리 재간을 부리고 기를 써도 그 작가만큼은 못 쓰겠다고, 그보다 재능이 적음을 탄식할 때가 있다. 「안해」, 「소낙비」, 「만무방」의 작가 김유정이가 그 한 사람이요, 「성화」의 작가 이효석이가 그 사람이다. 이제 최후로 한 사람을 꼽는다. 「사하촌」의 작자 김정한을![33]

> '생활'을 그리면서도 '기계적 줄거리'에서 벗어나 감각적으로 그것을 그려내는 성격이라는 것으로,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35

33) 김우철, 「현상 당선 소설을 읽고(5)」, 〈동아일보〉, 1936. 2. 26.

년과 1936년의 신춘문예 당선자 김정한은 꽤 친연적으로 수용되었다.[34]

김정한 소설이 이 당시 맥락에서 가지는 강점 중 하나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는 당대 '생경함'을 驅逐의 대상으로 보았던 1920년대 중반 문단이 최서해의 신경향파 소설을 강하게 흡수하여 문단에 안착시키는 과정과 닮은 데가 있다. 김정한은 사회주의와는 거리를 갖고 있었고, 따라서 그의 문학 자체를 사회주의 문학의 하나라고 연결할 수 있는 요소는 약했으나[35], 당대 1935년 계급문학 지형도에서 요구하는 '미덕'을 오히려 사회주의 문학가들에 비해서 더욱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김정한 문학이 갖고 있는 강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당대 문학 담론의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또한 밝혀 둘 필요가 있다.

> 이 경향은 그중 특색있는 경향의 하나일 뿐 아니라 유능한 신인들이 호랑이 담배먹든 시절을 일면을 이야기하는 사실이다. 여기에 비하면 김정한 씨의 당선작 「사하촌」이나 「항진기」는 실로 건전하고 시대를 노기를 띠고 내려다보는 듯한 심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36]

결과적으로 김정한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 조선일보에 의해 당선자로 선택되어 문단 활동을 시작했고, 초기 작품의 대부분을 조선일보 관련 지면을 통해 발표하였다. 하지만 김정한이라는 작가에 대한 문인들의 애

34) 사실 김유정, 이효석은 「동백꽃」, 「메밀꽃 필 무렵」 등으로 서정 작가로 기억되었지만, 1930년대 당시에 그들의 작품은 그 기억보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소비되었다. 당대 논자들에게 김유정과 김정한이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문예지나 신문지상을 통해 당시의 문학담론을 재구하고 그것과 문학작품을 다시 비교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발상이 닿아 있는 곳도 이 지점이다.

35)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정한의 해방 이후 행보가 그 이전 시기 김정한의 사상까지 곧바로 소급되어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6) 임화, 「정축년 문단회고」, 동아일보, 1937. 12. 15.

정과 고평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인용문은 임화가 동아일보에 실었던 당대 문단 회고의 한 자락이다. '당대'라고는 하지만, 「사하촌」이 1936년 초에 발표되고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게재된 비평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임화는 카프 이후 강화된 '로맨티시즘'의 경향에 대해 경계의 시선을 보낸다. 1919년 3.1운동의 좌절 후 로맨티시즘이 강화된 것과, 일본의 검열과 탄압 강화 후 로맨티시즘이 강화되는 것에는 비슷한 맥락이 내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계급의 문제를 이데올로기보다 생활, 현실의 문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상화해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김정한의 소설은 임화가 보기에도 그렇게 부과된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 중 하나였던 것이다. '현실'과 '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리얼리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기호들일 수 있다. 하지만 1935년 카프 해산 이후, '혁명'이라는 기호가 탄압되고, 또 그 기호에 얽힌 이데올로기가 억압되는 당대 현실의 맥락을 살펴 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당대 사회주의 문학 운동이 광범위하게 검열되는 것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어차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게 된 이데올로기를 '현실'과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 전제나 목표로서 뒤로 감추는 것은 여러 건의 글을 통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요컨대 현실과 생활을 발견하는 것은 당대의 특수한 상황에 놓인 작가와 시인의 중요한 시대적 소명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춘문예도 그러한 시대적 흐름과 대응으로서 작용하였고, 김정한의 작품이 당대 문단에서 고평을 받으며 안착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김정한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의 작품이 당대 문인들의 호명에 부응하는 결과가 되었는지, 혹은 김정한이 당대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이 작품들을 창작하였는지는 현재 공유된 정보들로는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김정한의 작품들이 당대의 문학적 담론과 매우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논의를 통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1935년과 1936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라는 양대 신문 매체에서의 문학 담론과 김정한의 초기 작품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당시는 카프 해산으로 좌파 문단이 극심한 침체기에 들었을 때지만, 양 신문의 문예 지면은 여전히 문학에서 계급성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비평과 논쟁들을 치열하게 게재하고 있었다.

당시 두 신문에서 치열하게 제시되던 키워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강령적 도입 여부에 대한 대응 논리의 일환으로서 '국가적/민족적 특수성', '현실(성)', '생활' 등의 기호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들은 곧 작가와 시인의 '사명', 혹은 자격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자격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신문의 신춘문예는, 신문의 매체적 차원의 문학담론과 이데올로그들이 공유하는 문학관이 실천되고 또 재생산되는 중요한 경로였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이념으로서의 문학담론들은, 신춘문예 당선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작가지망생들에게 있어서도, 신춘문예의 심사평이나 공모요강 등은 강한 참조점을 시사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김정한의 「사하촌」이 양 신문에 동시 투고되어 조선일보에서 당선되고, 그 이후 「사하촌」 뿐 아니라 김정한의 초기작이 두 신문을 통해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언급되며 고평가되는 것은, 김정한 문학의 자체적 우수성 뿐 아니라 당대 문단 지형과 문학 담론의 맥락과도 연관되어 있다. 김정한의 의도가 어떠했든, 그의 작품은 양대 신문이 지면을 통해 설파하던 문학작품에의 요구들에 부응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문단의 담론 전개와 발맞추어 소비될 수 있었다.

전자의 문제는 워낙 많이 언급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은 후자의 문제를 주목하였으며, 당대 김정한의 작품이 문학 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신문의 매체이념을 통해 드러나는 문학담론의 자장 하에 위치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글은 당대 문학 담론과 김정한의 작품을 연관지어서 고찰하였지만, 김정한 작품이 당대의 담론을 어떻게 굴절하였는지를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정한 작품을 당대 담론 맥락에서 읽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글의 방법론은 김정한 문학이 당대 담론을 어떻게 재생산/굴절하였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기능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작업에 대한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준현, 「단정 수립 후 문학 장의 변화와 이헌구의 문단회고」, 『어문논집』 83, 2018, 59-48면.

김준현, 「전후 문학 장의 형성과 문예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박경수, 「부산 · 경남 지역 아동문학의 현황과 전개 과정 연구」, 『우리문학연구』 31, 2010. 10, 339-404면.

오현석, 「요산 김정한의 신문 매체에 대한 인식과 소설 창작 방법 연구」, 『한국문학논총』 77, 2017, 229-261면.

우시지마 요시미, 문한별, 「192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의 검열 문건 연구」, 『어문론집』 72, 2017. 12, 249-278면.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한국문학연구』 36, 2009, 365-435면.

이봉범, 「잡지 〈문예〉의 성격과 위상」, 『상허학보』, 2006. 235-272면.

이순욱, 「광복기 요산 김정한의 문학활동 연구(1)」, 『비평문학』, 2013. 225-260면.

이희환, 「1930년대 신세대 작가의 두 갈래 길」, 『한국학연구』 1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2, 213-238면.

정미숙, 「부산 지역의 소설과 매체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8, 2017, 23-45면.

조윤정, 「번역가의 과제, 글쓰기의 윤리」, 『반교어문학』 27, 2009, 373-410면.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Jeong-han's short stories and the literary discourse on the newspapers in the middle 1930's

Kim Jun-hyun

This paper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terary discourse in the two major newspapers - the Dong-A Ilbo and the Chosun Ilbo - in 1935 and 1936 and Kim Jeong-han's early works. Back then, when the left-wing literary circle entered a period of extreme stagnation due to the disbandment of the KAPF, the literary pages of both newspapers were still fiercely publishing criticism and debates over how to shape the matter of class in literary works.

The keywords fiercely presented in the two newspapers at the time, were “national/national speciality” and “realistic”. They were bought out as their response logic on the problems of how to introduce ‘socialistic realism’ to literary field of Korea. the “Shin-Choon Munyae(the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in the newspapers were important routes through which the media ideology of the newspapers and the literary discourses shared by the literary writers of the media. Therefore, the literary discourse as a media ideology serves as an important criterion in the selection of Shin-Choon Munyae. In addition, for aspiring writers preparing for the contests, screening reviews and public offerings of the contests suggested strong points of reference.

Therefore, it is not only Kim Jeong-han's literary excellence but also

the context of literary discourse that Kim Jeong-han's early works matters in the process of acception of his works in the literary field at the time.

Key words: the literary discourse, *Kim Jeong-han*, *the Dong-a Ilbo*, *the Cho-sun Ilbo*, the middle 1930's, *Shin-choon Munyae*

투 고 일 : 2019년 11월 17일 심 사 일 : 2019년 11월 18일–12월 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19년 12월 26일